

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,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합조사 착수

- 토요타 렉서스 RX 1차종, 야마하 이륜차 TMAX, YZF-R3 등 2차종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*(38개 차종)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.

* 토요타(7차종), 혼다(22차종), 마쓰다(5종), 야마하(3차종), 스즈키(1차종)

○ 조사 결과,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 다만,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-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*되었다.

* 토요타(렉서스 RX)는 엔진출력 시험(제작 : '15.9~'22.9)에서, 야마하(TMAX 등 2차종)는 경음기 시험(제작 : '15.4~'21.10)에서 각각 부정행위

** ('24.6월 기준 등록현황) 토요타 렉서스 RX 6,749대, 야마하 TMAX 1,910대, YZF-R3 1,318대

□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*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합조사에 6월 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.

* '15.9~'22.9 제작한 토요타 렉서스 RX450h, RX450hL 등 2개 세부차종

□ 아울러,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수입·판매되는 렉서스 RX*의 엔진출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결합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.

* '23년 이후 제작·판매중인 토요타 렉서스 RX350h, RX450h+, RX500h 등 3개 세부차종

- 국토교통부는 일본 내 조치동향 및 국내 일본 수입차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제작결함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,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근 (044-201-4996)
	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	리콜정책처	처 장	정 혁 (031-369-0242)
		결함조사처	연구위원	오동수 (031-369-0243)